

〈서울특별시지부〉

환경보전을 위한 간담회

— 한수생 서울환경지청장을 모시고 —



때 / 1987년 10월 29일 14시

곳 / 서울환경지청강당

주 최 /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서울시지부

참석자 / 정국헌계획과장, 박당우지도과장, 홍정선측정·분석과장,

본연합회 임원, 서울지역 환경관리인

지난 10월 29일 환경지청 강당에서 가졌던 간담회는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법개정 이후, 환경관리인들이 현장에서 평소 궁급히 여기던 사항들을 가지고, 본연합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한수생 지청장과 지청의 각 과장에게 질의하고 자세한 응답을 듣는 기회로 삼자는 뜻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날 한수생 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여름의 수해와 격렬했던 노사문제를 예로 들면서

환경보전의 문제는 어떠한 사회 경제적문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할 공통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환경행정이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점을 언급함과 아울러 환경관리인들이 법령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므로 긴밀한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업내에서 환경관리인들의 지위가 좀더 확고해져야 하겠고, 이를 위해 관리인 자신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본연합회 조직도 정비되고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모임의 구성원, 개개인의 지위 향상 노력이 환경보전을 위한 기여도에 크게 작용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환경문제 전반에 걸친 질의와 응답이 서울시지부 홍종우 총무의 사회로 약 3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이날 질의 내용으로는 거시적인 환경정책의 방향 문제로부터 표준 산소농도 계산법, 원통여지 사용에 따른 문제제기, 아파트 분뇨정화시 소독기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

소의 수탁처리문제등 기술적인 측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환경업무의 이원화 거론에서는 관계기관의 행정적인 이해와 협조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요청됨을 확인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본연합회 이상호 부회장이 관리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날의 간담회를 마쳤다.

〈경기도지부〉

개정 환경보전법에 관한 간담회 개최

본 연합회 경기도지부(지부장·김완수)는 지난 10월 29일 시흥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리인 및 환경관계 업무 종사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환경보전법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청 실무담당직원(수질관리과 이봉우, 대기관리과 최수근)을 모시고 진행되었는데 법개정으로 인한 관리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충청지부〉

‘제 1 회 대전지청장기’ 쟁탈 체육대회

충청권내 환경관리인들 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키 위해 본 연합회 충청지부(지부장·송치열)에서는 지난 10월의 마지막날 대전 배재대학교 운동장에서 ‘제 1 회 대전환경지청장기’ (지청장·김인환) 쟁탈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지청장을 모시고 환경관계 유관단체 170여 명이 참석하여 대전시환경인(대전 공단 포함), 충남지역환경인(대전시 제외), 충북 지역환경인, 환경관계 유관단체의 4개 팀이 푸근한 인정, 푸짐한 상품과 더불어 치열한 선두 다툼의 한마당을 이루었다.

